

1 11월 해양사고 현황 (2017~2021)



□ 최근 5년간 11월의 해양사고는 평균 250건, 좌초·충돌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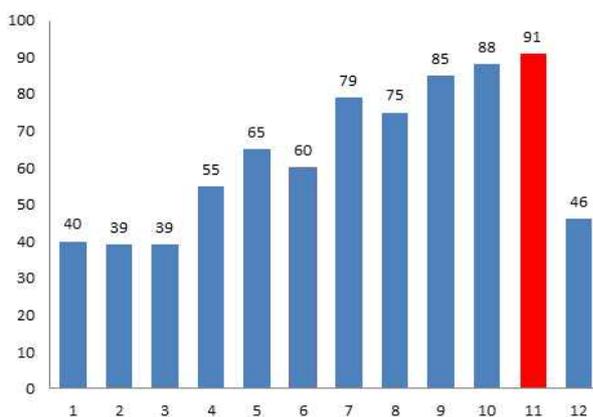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93	146	182	201	230	246	257	264	323	314	250	214

-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는 총 1,249건. 주요사고는 충돌 133건, 안전사고 88건, 화재·폭발 50건, 전복 34건, 침몰 28건 등의 순으로 발생
- (선박종류별) 사고 선박은 총 1,416척. 어선 972척, 수상레저기구 252척, 화물선 48척, 예인선 43척, 유조선 25척, 여객선 19척 등의 순으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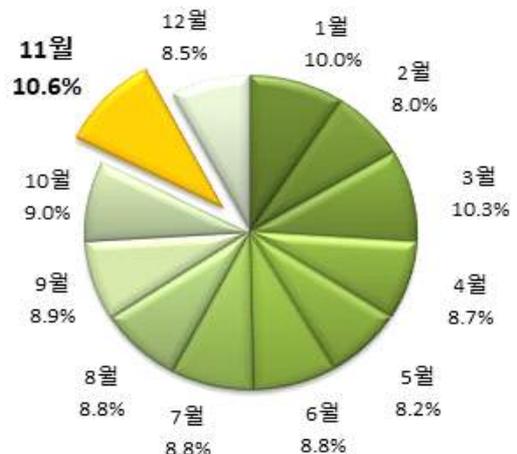
□ 11월은 갑작스러운 기온변화와 급격한 일교차로 인한 잦은 안개로 좌초 및 충돌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항해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사고현황) 11월은 좌초사고(91건)가 연중 가장 많으며(월평균 64건), 전체 사고 중 충돌사고 발생 비중(10.6%)도 가장 높음(연평균 9%)
- (사고원인) 선박위치 미확인, 당직근무 태만 등 항해 중 경계 소홀이 사고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좌초사고의 67%, 충돌사고의 71%)
- (사고예방) 시각·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경계, 선박위치 확인 철저, 시계 악화 시 적절한 안전속력 준수 등 항해 중 주의가 필요

(17~'21) 월별 좌초사고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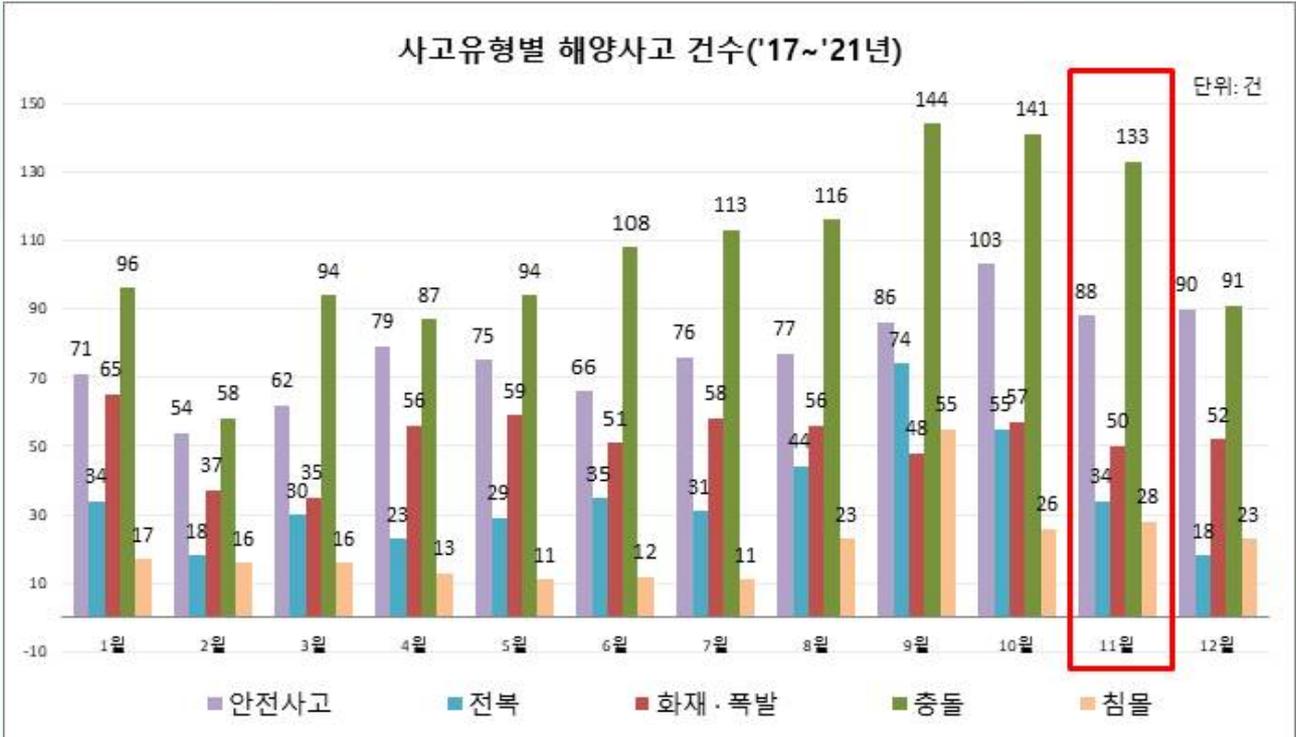
(17~'21)월별 충돌사고 발생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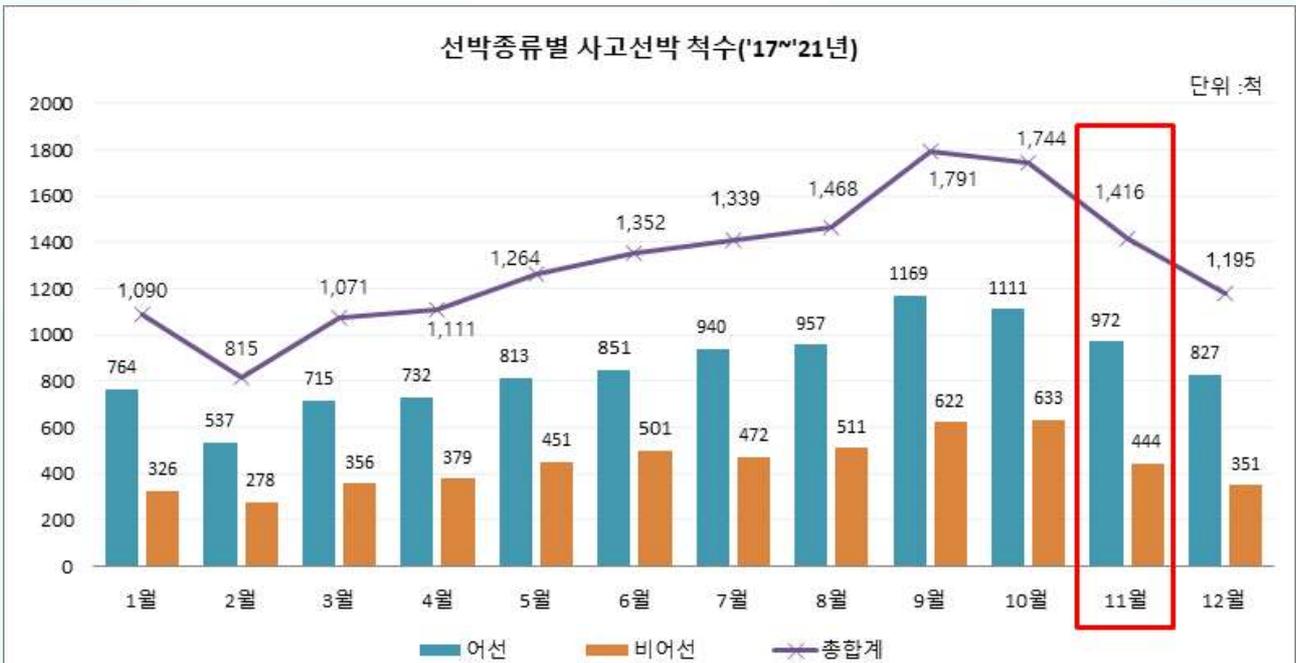
2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17~2021)

1.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2. 선박종류별 해양사고 현황



3 기상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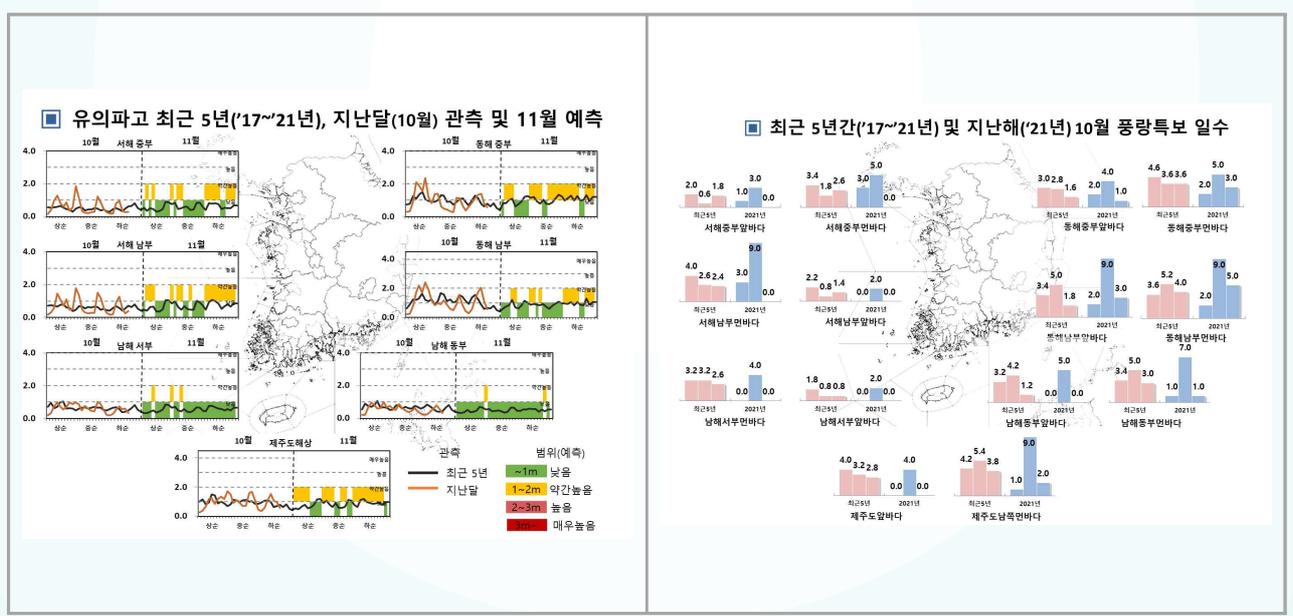
1. 2022년 11월 기상정보 (출처 : 기상청)

○ 11월 해양 특성(최근 5년('17~'21년))



○ '22년 11월 유의파고 및 수온 예측정보

- (유의파고) 11월 전 기간 서해상, 동해상, 제주도해상은 파고가 약간 높은 날이 많겠고, 남해상은 파고가 대체로 낮겠음
- (수온) 해역별 수온 분포는 서해 13.0~18.0°C, 남해 17.0~23.0°C, 동해 16.0~21.0°C의 분포를 보이겠음



2. 기상청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 (음성방송) 선박에 설치된 SSB 송수신기로 주파수 5,787.5KHz를 설정, 24시간 해양기상정보 및 예보를 제공
- (문자전송)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문자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 (marine.kma.go.kr, 가입 및 신청 필요)
- (안내전화) 기상청 일기예보 안내전화 131(ARS 및 상담)

4

주요 사고 사례

1. 낚시어선 A호 좌초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A호 : 낚시어선, 9.77톤, 길이 15.00미터, 디젤기관 316킬로와트 1기
	일시	2020. 11. 8. 13:01경
	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까막여등표로부터 026도, 거리 0.81해리 해상
	피해	선저외판의 파공으로 인한 침수 후 침몰
	날씨	북동풍 초속 5~6m, 파고 약 1.0m, 시정 양호
원인	<p>갯바위 낚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 중이던 낚시어선 A호가 간출암이 위치한 해역을 지나가며 좌초됨, 이후 파손된 선저부를 통해 침수가 진행되었고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많아 결국 침몰, 승객들은 바다에 뛰어내려 구명부환을 잡고 떠 있다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됨</p> <p>선장이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간출암 근처로 향해하도록 조선했던 것이 원인임</p>	
교훈	<p>○ 소형어선 선장은 간출암이 산재한 수역을 항행하는 경우 선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간출암의 수심과 조고·조류, 자선의 선미부 흘수, 그리고 파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이 간출암을 피해 안전하게 항행하도록 하여야 함</p>	

2. B호 예인선열 · 어선 C호 충돌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B호 : 예인선열, 134톤/4,262톤, 디젤기관 1,029킬로와트 2기 C호 : 어선, 6.63톤, 길이 11.78미터, 디젤기관 330킬로와트 1기
	일시 장소	2020. 11. 17. 05:19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점도 북방 약 0.9해리 해상
	피해	어선 C호 전복 및 선장 사망
	날씨	북서풍 초속 2~4m, 파고 약 0.5m, 시정 양호
원인	<p>남동쪽으로 향해 중이던 예인선열과 서쪽으로 향해 중이던 어선이 충돌, 예인선열 사이의 예인줄에 어선이 걸려 전복됨</p> <p>횡단항법에 따라 피항선인 어선이 유지선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 예인선열 측에서 어선이 충돌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하는데도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p>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선박은 상대선이 비켜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정해진 항법에 따라 피항동작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한 당직항해사는 경계를 강화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근접상태가 되기 이전에 미리 큰 동작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함 	